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과 학습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Sense of Humor by Instructors and Learning Motivation up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조영미, 김종경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Young Mi Cho(choyoung23@gimcheon.ac.kr), Jung-kyung Kim(20170030@gimche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과 학습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경상북도 소재의 G대학교의 간호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과 학습동기에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여 주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과 학습동기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해 교수자의 유머사용, 그리고 유머감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유머감각 | 학습동기 | 전공만족도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ense of humor by instructors and learning motivation i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60 nursing students of D university in Gyoungsaingbuk-do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2. The results showed that a sense of humor by instructors and learning motivat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programs to develop the sense of humor of the instructors and to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instructor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a concrete strategy to improve learning motiv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hould be established.

■ keyword : | Sense Of Humor | Learning Motivation | Major Satisfaction | Nursing Students |

* 본 연구는 김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8년 11월 13일

수정일자 : 2019년 01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1월 03일

교신저자 : 김종경, e-mail : 20170030@gimcheon.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간호사들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양성되어야 하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간호사는 다양한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하면서도 대상자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지식체계와 실무체계의 발달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유지시키는 것은 전문 간호인 양성의 밑거름이 되므로 이는 간호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많은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전문지식과 간호기술 및 자질 등을 한꺼번에 습득하여야 하는 과도한 학업과 실습의 부담감 때문에 전공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과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1].

반면, 대학생할 적응력이 높은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높고,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간호사로서 직업에 대한 포부와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2]. 더 나아가, 전공 만족도가 사회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첫 직장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3], 간호학과의 경우 전공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의 여파는 이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영향요인을 밝혀내는 연구는 중요하다. 많은 선행문헌들에서 전공만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것[4][5][8],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이는 것[6],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을 높이는 것[7], 봉사활동의 경험을 노출시킴으로써[7][8] 전공만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참여하도록 도

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그중 유머는 긴장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의사소통의 간접적인 형태로서 사회적 거리감을 좁혀주고, 낯설음의 공포를 감소시키며 신뢰감을 증진시키므로[9] 간호대학생들에게 유머감각이 있는 교수자와 함께 협업을 할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수자의 유머감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군대에서 교관들이 강의 시에 주의 집중과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고[10], 각종 회의 전에도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고 분위기를 밝게 한 후 회의를 실시하는 등으로 유머의 긍정적 효과와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0]. 유머감각은 강의나 회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인임을 인지하고,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유머감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11].

이것은 교육계통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옥순[12]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유머수준이 학습풍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수한 교사가 유머를 더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어[13], 이는 교수자의 유머감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래의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학습 동기는 학습활동뿐 아니라 학습능률과 학습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미 및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된다[14]. 또한 학습 동기는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학생들이 학습내용에 집중하고 학습에 끈기를 가지고 매달리며 열성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15].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교육의 만족도, 즉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15]. 그러므로 학습동기가 전공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간호교육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및 전공만족도는 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명확하게 규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의 정도와 각각의 상관관계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과 학습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그리고 전공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였다. 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G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관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간호학과 학과장과 면담하고 학과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및 동의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설명문과 동의서에 설문내용이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와 조사된 자료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명시하였고, 설문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과 연구 종료와 함께 폐기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인 G*Power 3.1.9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효과 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그리고 예측변수를 2개를 지정하였을 때, 최소한의 표본 수는 107명이었고,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165명중 불성실한 설문지 5개를 제외시켜 160명으로 조건에 충족되었다.

3. 연구도구

1)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유머를 인지하고 스스로 즐기며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16] Thorson과 Powell[17]이 개발한 다면적 유머감각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를 이재선[18]이 번역해서 사용한 척도 중에서 학생이 교수자의 유머감각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발췌 수정하여 10개의 문항을 측정에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 감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재선과 조아미[16]의 연구에서 설명문항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896$ 이었다.

2) 학습동기

학습 동기란 어떤 과제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 호기심, 자기만족감, 성취감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신념과 의욕의 정도를 말한다[15]. 학습동기는 Amabile, Hill, Hennessey, & Tighe[19]의 작업선호검사(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WPI)의 동기검사 도구를 윤미선[20]이 새롭게 20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점(매우 아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윤미선[20]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679$ 로 나타났다.

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평가하는

결과의 산물이다[21]. 하혜숙[22]이 작성한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최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혜숙[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alpha=.92$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848$ 이었다.

Table 1. Differences in Sense of Humor, Learning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60)

Variables	Categories	n(%)	Sense of Humor		Learning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M±SD	t or F(p), Sheffe	M±SD	t or F(p), Sheffe	M±SD	t or F(p), Sheffe			
Gender	Male	24(15)	3,833±0,473	3,476(0,001)	3,212±0,320	1,999(0,047)	3,933±0,443	3,141(0,002)			
	Female	136(85)	3,381±0,604		3,064±0,336		3,519±0,618				
Age	18	17(10,6)	3,371±0,425	1,943(0,090)	3,00±0,3458	0,953(0,449)	3,652±0,375	2,444(0,037)			
	19	58(36,3)	3,396±0,612		3,061±0,296		3,474±0,668				
	20	44(27,5)	3,329±0,713		3,071±0,378		3,460±0,627				
	21	23(14,4)	3,634±0,424		3,184±0,345		3,758±0,520				
	22	6(3,8)	3,616±0,630		3,058±0,385		3,837±0,577				
	over23	12(7,5)	3,181±0,521		3,204±0,315		3,975±0,510				
Siblings	None	17(10,6)	3,541±0,607	0,998(0,411)	3,191±0,332	0,850(0,495)	3,621±0,633	1,081(0,368)			
	1	105(65,6)	3,413±0,636		3,075±0,344		3,559±0,639				
	2	33(20,6)	3,493±0,501		3,071±0,292		3,636±0,510				
	3	4(2,5)	3,375±0,590		2,975±0,520		3,287±0,443				
	4	1(0,6)	4,5	3,45	4,625						
Religion	Christian	25(15,6)	3,596±0,476	0,656(0,580)	3,168±0,362	1,074(0,362)	3,760±0,328	0,875(0,456)			
	Catholic	11(6,9)	3,418±0,908		3,104±0,252		3,547±0,724				
	Buddhism	18(11,3)	3,488±0,411		3,054±0,351		3,504±0,467				
	None	106(66,3)	3,413±0,627		3,086±0,337		3,555±0,668				
Motivation for entering	Aptitude	38(23,8)	3,536±0,552	1,894(0,099)	3,168±0,331	4,437(0,001)	3,750±0,709	1,583(0,168)			
	Grade	10(6,3)	3,610±0,523		3,365±0,341		(a<t)		3,785±0,313		
	Recommendation from others	35(21,9)	3,340±0,640		2,964±0,305		3,453±0,470				
	Easy finding jobs	59(36,9)	3,339±0,604		3,014±0,311		3,480±0,638				
	Belief	10(6,3)	3,690±0,657		3,260±0,229		3,715±0,757				
	Helping others	8(5)	3,825±0,584		3,206±0,444		3,662±0,325				
Department satisfaction	Good	47(29,4)	3,646±0,640	5,986(0,003)	3,217±0,361	5,254(0,006)	3,903±0,619	18,74(0,000)			
	Middle	96(60)	3,416±0,568		c<a		3,035±0,313		c<a	3,532±0,481	c<b<a
	Bad	17(10,6)	3,088±0,549		3,014±0,312		2,969±0,721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83(51,9)	3,578±0,564	6,638(0,002)	3,188±0,328	12,075(0,000)	3,779±0,535	21,94(0,000)			
	Middle	75(46,9)	3,334±0,591		c<a,b		2,992±0,303		c<a,b	3,414±0,547	c<a,b
	Bad	2(1,3)	2,40±1,414	2,425±0,176	1,625±0,883						
Grade point average (GPA)	High	11(6,9)	3,645±0,573	1,883(0,156)	3,190±0,401	1,668(0,192)	3,925±0,506	3,610(0,029)			
	Middle	106(66,3)	3,484±0,559		3,105±0,323		3,613±0,589		(c<a)		
	Low	43(26,9)	3,311±0,708		3,015±0,348		3,414±0,650				

p<.05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그리고 전공만족도 특성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분석을 하였다.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그리고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전공만족도에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남자 15%(n=24) vs 여자 85%(n=136)으로 여자 간호대학생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01±1.139세였으며, 19세(36.3%), 20세(27.5%), 21세(14.4%) 순이었다. 대상자를 제외한 형제의 수는 1명의 형제가 있는 간호학생의 수가 65.5%(n=10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2명의 형제가 있는 간호학생이 20.6%(n=33), 그리고 외동이 10.6%(n=17)로 조사되었다. 종교는 무교가 66.3%(n=106)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진학동기를 묻는 질문에 취업의 용이함 때문이라고 응답한 간호학생의 수가 36.9%(n=59)로 가장 높았고, 적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부모님이나 지인의 권유가 각각 23.8%(n=38), 21.9%(n=35)로 조사되었다. 학과만족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60%(n=96)이었고,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29.4%(n=47), 그리고 불만족이 10.6%(n=17)로 분석되었다. 교우관계는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51.9%(n=83), 보통이 46.9%(n=75), 그리고 나쁘다고 응답한 수는 겨우 1.3%(n=2)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66.3%,n=106) 중간정도의 성적을 가진다고 하였고, 성적이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26.9%(n=43), 그리고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9%(n=11)로 확인되었다[Table 1].

2.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의 정도

간호대학생이 인지한 교수자의 유머감각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449±0.607점이었고, 학습 동기는 3.086±0.337(5점 만점), 전공만족도의 경우는 3.581±0.611(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Level of Sense of Humor, Learning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n=160)		
Variables	M±SD	Ranges
Sense of Humor	3,449±0,607	1-5
Learning Motivation	3,086±0,337	1-5
Major Satisfaction	3,581±0,611	1-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3.476, p=0.001; t=1.999, p=0.047; t=3.141, p=0.002) 남자 간호대학생의 경우가 여자 간호대학생 보다 교수자의 유머감각(3.833±0.473 vs 3.381±0.604), 학습동기(3.212±0.320 vs 3.064±0.336), 전공만족도(3.933±0.443 vs 3.519±0.618)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에 따라서는 전공만족도만 나이가 많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짐을(F=2.444, p=0.037) 확인 할 수 있었다. 형제의 수, 종교는 아무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진학의 동기에 따라 학습동기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F=4.437, p=0.001). 또한 학과만족도에서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F=5.986, p=0.003, F=5.254, p=0.006, F=18.742, p<0.001), 학과만족도가 높을수록 모든 변수에서 점수가 높았다. 교우관계도 같은 결과를 보여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모든 변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F=6.638, p=0.002, F=12.072, p<0.001, F=21.937, p<0.001), 성적의 정도에 따라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전공만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이 차이는 유의했다(F=3.610, p=0.029)[Table 1].

4. 연구대상자가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 학습동기, 전공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0.647, p<0.001$)를 보여주었고, 학습동기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을($r=0.507, p<0.001$) 보여 주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Variables	Sense of Humor	Learning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r(p)	r(p)	r(p)
Sense of Humor	1		
Learning Motivation	0.528 (0.001)	1	
Major Satisfaction	0.647 (0.001)	0.507 (0.001)	1

5.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Durbin-Watson통계량은 1.840으로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721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 값은 1.387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은 교수자의 유머감각과 학습동기에 의하여 44.9% 설명되었으며($F=65.914, p<0.001$).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beta=0.525, p<0.001$)과 학습동기($\beta=0.230, p=0.001$)임을 확인했다[Table 4].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과, 대상자들의 학습동기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성별, 나이, 교우관계, 그리고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김덕진과 이정섭[23]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결과이며, 또한 입학동기와 교우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양경미[24]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임정혜[25]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공만족도가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이유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대부분인 간호학과를 지원하는데 있어 충분한 고려를 거쳐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전공만족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어진다.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에서 취업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며, 취업 걱정에서 타과보다는 자유롭다는 장점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은 수록 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의 경우 교우관계는 학교생활의 만족을 나타내며[24], 학교생활의 만족이 스트레스 및 불안의 감소로 전공만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학점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는 선행문헌이 없어 비교하기 어려우나 학점이 높을 수록 전공 공부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준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은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Major Satisfaction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 R ²	(n=160)
								F(p)
(Constant)	0.468	0.333		1.405	0.162			
Sense of Humor	0.529	0.07	0.525	7.58	0.000	0.456	0.449	65.914 (0.000)
Learning Motivation	0.417	0.126	0.230	3.317	0.001			

이는 김춘광과 유봉호[26]의 연구에서, 강의 시 교수자의 유머는 수업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몰입은 강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군상담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의 경우 부하의 군생활 적응 및 심신의 상태, 임무수행 의지, 직책 및 직무만족, 조직환경에 대한 태도에서 직속상관의 유머감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0]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학생들에게 유머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며, 동기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강의와 연관성 있는 유머는 교수자와의 관계까지도 원만하게 해준다고 보고되고 있다[27]. 이는 유머러스한 교수자에게 유머가 매개가 되어 학생들이 교수자에게 더 쉽게 접근하고, 또한 유머가 의사소통의 창구가 되어 교수자와 학생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대학은 더 이상 학생들이 찾아와 수업을 듣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교수자들도 더 이상 강의만하고 학생들과 교류가 없는 근엄한 교수자가 아니라 유머감각을 갖추어 학생들과 교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문헌들을 고찰해 보았을 때, 교수자의 유머감각이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볼 수 있고, 이에 교육계와 교수학습 지원 정책들은 교수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있어 적절한 유머의 사용, 그리고 유머감각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학습 동기는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14][25][28] 학습 동기가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임으로써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학습 동기를 높이는 학습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하고 그에 따른 전략의 수립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일환으로 학습동기 유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비교과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야 한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수자의 유머감각과 학습동기가 전공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과, 학습동기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교수자의 유머감각과 학습동기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유머사용, 그리고 유머감각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학습동기 유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습동기와 전공만족도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교수자의 유머감각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힌 연구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교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다양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오은진, 공정현,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진로성숙태도,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pp.245-259, 2017.

- [2]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 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3-91, 2010.
- [3] 어윤경, "진로상담 : 전공-직무 일치와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무 만족도 변화추이,"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pp.721-738, 2010.
- [4] 조영미, 김혜련, 김은정, "간호대학생의 투지와 감성지능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료경영학연구, 제12권, 제3호, pp.23-30, 2018.
- [5] 김영순, 오은주,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103-111, 2016.
- [6] 정미라, 정은, "E-book 기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pp.490-501, 2018.
- [7] 신미아,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자아 존중감 및 직업존중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3권, 제1호, pp.1024-1035, 2013.
- [8] 박필남,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264-273, 2017.
- [9] 민순, 정영주, 김혜숙, "간호사의 유머감각과 업무성과와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제17권, 제4호, pp.1427-1444, 2004.
- [10] 구남웅, 최태산, "부하가직각하는직속상관의유머감각및유머스타일과부하의군생활적응과의관계," 상담학연구, 제10권, 제3호, pp.1757-1768, 2009.
- [11] 허영주, "교사유머의 주요 유형과 유머의 목적·소재·표현방식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차이분석," 교육방법연구, 제21권, 제1호, pp.115-139, 2009.
- [12] 박옥순,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교사 유머수준이 학급풍토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3] D. Stuart and B. Rosenfield, "Student perceptions of teacher humor and classroom climat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11, No.1, pp.87-97, 1994.
- [14]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8호, pp.311-321, 2017.
- [15] 서남숙, 이상준, 하윤주, "융복합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 학습동기가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9호, pp.11-19, 2015.
- [16] 이재선, 조아미, "청소년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3권, 제6호, pp.79-100, 2006.
- [17] A. Thorson and C. Powel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Psychodynamics and Psychopathology, Vol.49, No.1, pp.13-23, 1993.
- [18] 이재선, *청소년의 유머감각과 유머스타일이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19] M. Amabile, G. Hill, A. Hennessey, and M. Tighe,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6, No.5, pp.950-967, 1994.
- [20] 윤미선, *사고양식에 따른 학습동기 및 교과흥미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21]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학과만족의요인에 관한연구," 상담학연구, 제1권, 제1호, pp.7-20, 2000.
- [22]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23] 김덕진, 이정섭,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2호, pp.244-254, 2014.
- [24] 양경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디지털융복합 연구, 제15권, 제12호, pp.445-453, 2017.
- [25] 임정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에 관한 경로모형,"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4B호, pp.2273-2284, 2014.

[26] 김춘광, 유봉호, "대학 강의유머가 재수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제33권, 제1호, pp.143-160, 2018.

[27] A. Banas, N. Dunbar, D. Rodriguez, and S. Liu, "A review of humor in educational settings: Four decades of research," Communication Education, Vol.60, No.1, pp.115-144, 2011.

[28]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저 자 소 개

조 영 미(Young Mi Cho)

정회원



- 2002년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간호학사)
- 2014년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간호학 석사)
- 2019년 : 경희대학교 대학원(박사수료)

▪ 현재 : 김천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 노인, 다문화

김 중 경(Jung-kyung Kim)

정회원



- 2010년 : 건양대학교(간호학사)
- 2012년 : 건양대학교(보건학석사)
- 2017년 : 건양대학교(간호학박사)
- 현재 : 김천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 시뮬레이션